

mother
sister
daughter-in-law
wife
woman
daughter
korean
employee
self-ownership

이
것
은

사진작가 사사
세 번째 개인전

많은 여성들은 부모님, 시부모, 자식, 그리고 가정을 돌보며 다양한 돌봄 역할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당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돌봄을 이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상실감과 공허함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피어오르기도 한다.

‘개인의 실증’은 엄마, 딸, 직장인, 배우자, 자영업자, 누이, 며느리라는 수많은 이름과 책임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며 점점 본래의 ‘나’가 희미해져 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단순한 육체노동을 넘어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기획 노동까지 포함한다.

감정과 환경, 일정까지 세심하게 조정하는 이 과정은 사실상 사회에서 경험을 쌓는 일과 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축적된 능력은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만큼 값지다.

장천 파랑새창고



2024.11.16. - 11.22.